

KOBA 2022

World Media Forum Review

글. 김정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실장



KOBA 2022 World Media Forum이 지난 6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2020년, 2021년을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한 KOBA World Media Forum이었다. 이번 World Media Forum은 ‘What is Now and What is Next with TV Service’라는 주제로 미국, 유럽, 한국의 미디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차세대 방송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한편, 방송사들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모델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4개의 강연이 있었고 강연 이후에는 강연해주신 연사분들과 ‘차세대 방송서비스 환경의 변화 파악 및 예측’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면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짧게나마 간략히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짚어보자.

첫 번째 강연은 ‘차세대 방송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미국 Sinclair Broadcasting Group의 기술 부문 사장인 Delbert R. Parks가 강의했다. ATSC 3.0을 비롯한 차세대 방



Delbert R. Parks, Sinclair Broadcasting Group의 기술 부문 사장

송기술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이러한 기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ATSC 3.0을 포함한 새로운 방송기술들의 표준 성능과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결합한 NextGen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NextGen 데이터 배포를 위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사용 사례에 대한 협력을 통해 NextGen 데이터 캐스팅 기술의 배포를 가속화하고 고객 수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은 방송인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한국과 미국에서 미디어 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미국에서의 NextGen TV 서비스 모델과 현황’에 대하여 Sinclair Broadcasting Group 수석 부사장 Mark A. Aitken이 발표하였다. ATSC 3.0 기술 표준을 적용한 차세대 방송을 새로운 시대의 TV라는 의미의 ‘NextGen TV’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가정의 50% 이상이 ATSC 3.0의 적용을 받고 있고 2022년 중반까지는 7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ATSC 3.0과 5G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ATSC 3.0의 5G 브로드캐스팅과의 융합에 관해서도 추가 설명이 있었다. 이러한 융합은 커다란 스크린을 통한 방송뿐만 아니라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하이브리드 4G/5G 통합, ATSC 핫스팟 유틸리티 등 모바일 기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완전한 모바일 지원 장치를 통해 여러 비즈니스에 접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ATSC 3.0의 글로벌 사례로 통합 브로드캐스팅/브로드밴드 미래의 일부로 ‘NextGen Broadcasting’을 수용한 인도에 대한 예를 들었다.



Mark A. Aitken, Sinclair Broadcasting Group 수석 부사장





Mohamed Aziz Taga, Rohde & Schwarz 5G 미디어 서비스 총괄 책임자



World Media Forum이 열렸던 컨퍼런스룸 402호 입구에서 선보였던 Rohde & Schwarz의 5G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솔루션

세 번째 강연은 Rohde & Schwarz(로테슈바르츠)에서 5G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를 포함한 5G 미디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Mohamed Aziz Taga 총괄 책임자가 ‘글로벌 5G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모델과 현황’에 관해서 진행하였다. 5G 브로드캐스팅의 주요 기능으로는 간소화된 아키텍처로 SIM 카드 없이 수신, 수신전용 모드 및 무료 방송, 다양한 주파수 옵션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용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5G 브로드캐스팅과 여러 산업 간의 교류로 생겨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는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 정보, OTA를 통한 지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라이브 비디오 및 오디오, VoD에 관한 것이 있으며 공공 안전을 위해서 SIM 카드 없이 모든 수신기(예 : 스마트폰, 차량, 웨어러블 등)에서 긴급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관해 언급하였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필요한 표준 작업은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5G 브로드캐스팅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바일 네트워크 및 TV 사업자, 칩셋 및 기기 제조업체, 콘텐츠 제공업체 모두가 동의하는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강연에서는 이승호 문화방송 기술정보사업파트장이 ‘국내 ATSC 3.0 서비스 모델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서비스 분야에서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생소하게 여기는 차세대 위치 정보시스템 ‘RTK’에 대하여 발표했다. 기존 GPS 신호에 대한 보정 정보를 DMB 신호나 UHD ATSC 3.0을 통하여 RTK 수신기에 전송함으로써 2~3cm의 오차로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적용 분야의 예로 정밀 농업 작업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배송, 자율주행차를 제시하였으며, NAB 2022에서 드론 배송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많은 관계자에게 RTK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하였다.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한 RTK 서비스가 4G/5G 통신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지는 장점으로 150m 이상 상공에서의 정확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PoC(Proof of Concept)를 통해 증명해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ATSC 3.0 RTK 기술이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승호 문화방송 기술정보사업파트장



차세대 방송서비스 환경의 변화 파악 및 예측'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의

강연이 모두 종료된 후 미국, 유럽, 한국의 미디어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강연자분들과 함께 ‘차세대 방송서비스 환경의 변화 파악 및 예측’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방송서비스의 미래 전략, 정부의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 TV 수 상기를 넘어 다른 플랫폼으로의 서비스 확대, 5G 브로드캐스팅의 성공 여부, RTK 서비스의 해외 진출 상황 등 여러 의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필자가 이번 World Media Forum을 진행하고 강연자들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면서 느낀 점은 현재 수많은 차세대 방송기술 서비스들이 각자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기술의 중심에는 우리 방송기술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디어 혼돈의 시대에서 방송기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차세대 방송기술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KOBA 2022 World Media Forum 행사가 열릴 수 있게끔 큰 노력을 해 주신 한국방송기술인협회 사무처 직원분들과 방송기술교육원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